

2024년 도내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우수사례집

새로운 희망 새일로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재)충남경제진흥원장 김찬배입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충남경제진흥원 충남광역새일센터는 도내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4년 도내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우수사례집」은 도내 새일센터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중요한 사례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은 이들의 생생한 경험은 앞으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여성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례집이 각 지역의 취업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많은 분과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광역새일센터는 더 많은 여성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재)충남경제진흥원장 김 찬 배

Contents

0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

07 충남광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10 지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14 취·창업 우수사례 당선작

대 상 김소정

소란의 상상은 (새일센터를 만나) 현실이 된다! 16p

최우수상 송은섭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20p

최우수상 노미와

같이 고민하고 함께 돌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24p

우 수 상 홍기숙

당진 새일 업고 튀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28p

우 수 상 박종미

아들 셋 엄마의 두 번째 인생, 시니어 강사로 거듭나다 34p

장 려 상 강이람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꽃이다. 부여새일센터는 취업에 꽃이다. 37p

장 려 상 유수미

밤하늘에 수놓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구직자 44p

장 려 상 한정은

함께 성장하는 새일의 미래는 밝습니다 48p

장 려 상 임진영

다시 시작하는 용기! 내 일(My job)을 위한 새로운 도약 52p

장 려 상 이창숙

새일센터와 함께하는 한 해: 파트너십 프로젝트 이야기 55p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소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ONE STOP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요 사업

경력단절 여성과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직업교육 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직업상담

경력개발 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 자신감 고취

✓ 경력단절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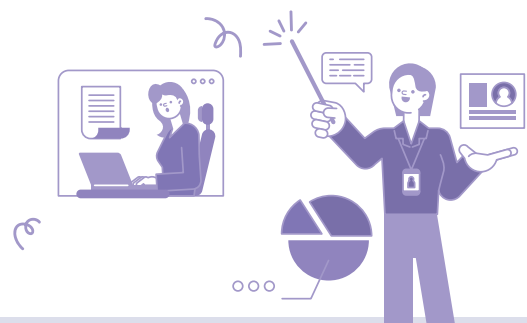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구축, 인식개선사업

✓ 취·창업 연계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취업유관기관 연계

✓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 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개

3 충남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충남 광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충남광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경력단절 걱정 없는 복지도 충남”

여성고용안정 통합네트워크 구축

충남 도내 여성 맞춤 고용안정 지원 서비스 통합 및 허브 기능 수행을 위한 시·군 네트워크 및 유관 기관·기업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 새일센터 지원협의회
-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 새일센터 실무자협의회
- 각종 간담회 및 협약 체결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자 간담회

시·군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한 맞춤 지원을 합니다.

- 시·군 새일센터 운영 활성화 컨설팅
- 직무별 맞춤 역량강화 교육
- 새일센터 통합 워크숍

여성고용창출 맞춤형 사업

여성창업자들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예비·초기)창업 교육, 창업자 컨설팅, 여성창업 전시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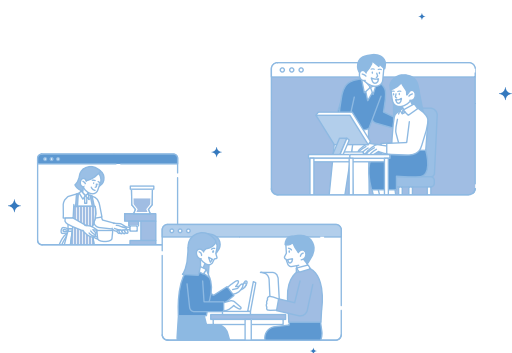
- 창업아카데미(예비·초기)
- 창업 역량강화 교육
- 창업 컨설팅(경영·브랜드)
- 여성 창업전시회(국내 박람회 참여)지원



충남광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운영

경력단절여성·재직자·기업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 제공을 다양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진입과 고용안정에 기여합니다.



✓ 직장문화개선지원

- 직장문화개선 기업컨설팅
-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관리 재직자 교육·워크숍
- 여성 커리어 워크숍

✓ 협력망구축

- 경력단절 예방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 지역대학 여성 일자리 협의체
- 새일센터 종사자 및 전문가 교육

✓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 경력단절 예방 인식개선 통합 홍보
- 찾아가는 W-link Day
- 경력단절 예방 행사
- 경력단절 예방·극복 우수사례 공모전
- 경력단절 예방·극복 우수사례집 발간

직업교육 훈련과정 개발

광역새일센터 중심의 시군 전략산업 유망직종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구성합니다.

- 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사업체 수요조사
- 충남지역 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과정 개발

국민취업 지원제도 운영(금산, 예산, 태안)

고용절벽에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맞춤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지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취업상담

✓ 1:1맞춤형 취업상담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과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전문 취업상담사가 구직여성의 경력과 조건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 취업 정보제공

구직여성에게 취업 정보(여성 유망직종, 자격 시험정보, 일자리 등)와 직업교육 훈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역으로 찾아가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직업교육 훈련

✓ 직업교육

구인수요가 높은 취업직종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여성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직업의식 고취 교육

직업의식 교육, 능력개발 교육, 이미지메이킹, 면접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지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취업연계

✓ 맞춤형 취업 알선

구직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 현황, 경력 사항 등을 바탕으로 취업을 알선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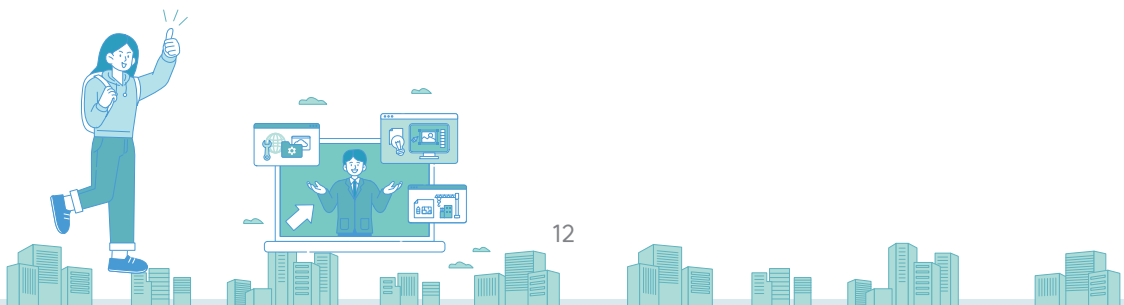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제

경력단절 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기업은 인턴자에게 인턴십 제공(직장적응, 직장내 훈련 등) 및 급여를 지급하며,
새일센터는 인턴채용지원금(인턴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인건비 보조 성격)과 장려금을 지급

- 인턴 대상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알선된 여성
- 인턴 기간 - 3개월
- 인턴지원금 - 1인당 380만 원 한도
- 인턴채용지원금 - 월 80만원×3개월(기업)
- 새일고용장려금 - 80만원(기업)
- 근속장려금 - 60만원(인턴)

※새일고용장려금, 근속장려금은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지급



지역새일센터 주요 사업

취업 후 사후관리

✓ 취업자 사후관리제도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
-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 취업자 간담회

채용기업 사후관리

✓ 채용기업 사후관리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양성평등 인식개선 교육지원
- 기업환경개선지원

✓ 기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지원내용**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2024년

도내 새일센터 취·창업 지원

우수사례집

취·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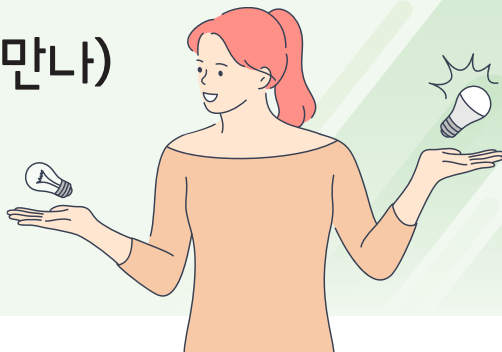
우수사례

당선작





소란의 상상은 (새일센터를 만나) 현실이 된다!



홍성군 새일센터에 찾아갔던 날

제가 새일센터 문을 두드린 건 2024년 1월, 제가 5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막 그만둔 때입니다. 일에 지쳐있기도 했고, 직장이라는 틀에 갇혀 저 자신이 소모되는 것 같다는 마음에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라도 제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문학과를 나와 소설을 쓰고,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책 읽기 강사로 오래 활동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충남도청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직장인으로 바쁘게 지냈지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꼭 내 이름을 걸고 책방을 내보자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책방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권하고, 책을 매개로 이웃과 소통하고, 그런 동네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구직활동이든 창업이든 뭔가를 실행해야 할 때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일센터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운명적으로) 홍성새일 창업 상담사를 만나다.

쭈뼛거리며 새일센터에 들어서자, 전화를 받고 초기상담을 진행했던 이○○ 국장님이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하는 국장님은 ‘책방 창업’이라는 아이템 자체에 무척 호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선, 홍성과 예산지역을 통틀어서 이렇다 할 동네 책방이 없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서는 제가 ‘어떤 책을 팔 것인지’, ‘책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인지?’ 등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의 이력을 밝히고 ‘문학 전문 서점’을 만들고 싶고 다양한 책 읽기 프로그램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책방’을 내고 싶다고 하면 옆에 아홉은 ‘돈이

될 것 같지 않다’며 말리는 분위기였는데, 국장님은 제 꿈을 무시하지 않고 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신나게 제 꿈을 펼쳐 보여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열린 마음으로 제 꿈을 들어주셨고,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응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지만 잘 찾아왔노라고, 창업 멘토링 지원 사업이 곧 열리게 될 거라고, 천천히 창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꿈을 현실화할 것인지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의 진실한 태도와 적극적인 추진계획에 저는 제 꿈이 언제 정말 현실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열린다.

2월 19일, 정말로 새일센터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장님은 저 말고도 사람들이 꽤 모여 있다고 하시며 아이템도 다양하다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제 또래의 중년 여성이 다섯 명,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한 명 계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아이템도 다양했습니다. 몸에 좋은 수제 베이글을 만들고 싶은 분, 떡케이크 가게를 인수한 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며 공부 교재를 만들고 싶은 분, 재가복지센터를 만들고 싶은 분, 영어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분, 식물치료 가게를 꾸리고 싶은 분, 그들도 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셨지요.

저까지 총 일곱 명의 예비 창업자들은 그 후로 3주 동안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창업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마치 대학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긴 시간이었지만 수업 내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 먼저 창업이 무엇이고, 창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점검부터, 구체적인 창업절차와 마케팅, 사업자등록, 세무 기초까지, 너무도 꼭 필요한 엑스교육이라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강사분들의 역량과 전문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창업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풀어주신 이앤에스컨설팅의 대표님과 마케팅 고수인 스파크업 대표님, 세무기초 등 창업 살림에 대한 강의를 맡아주신 티앤비 경영연구원 협동조합의 이사장님, 이렇게 세 분의 강사님은 저희가 혹 하나라도 놓칠까 봐 열의를 가지고 강의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이앤에스 대표님의 한 마디였는데요.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창업은 왜 한다?” 저희는 머뭇거렸고,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다. 오늘부터 잘 새기세요.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창업 역시 직업이며, 먹고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맞지요. 저도 열심히 대표님을 따라 손익분기점을 계산했고, 하루에 책 몇 권을 팔아야 한 달에 적어도 2백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주 동안 새일센터의 수업을 들으며 책방 창업에 대한 자신이 생겼고, 저는 실제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한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책방을 내기까지 적어도 현금으로 3천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할 것 같았고, 제가 가진 돈과 끌어올 수 있는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구체화할수록 초기 창업 비용은 늘어났고, 꿈은 다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하다.

‘자금을 모아야 한다!’ 밀저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새일센터에서 컨설팅 받은 대로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고, 추가 금액을 받고 싶어 일자리진흥원에서 진행한 ‘중장년 재도약 사업’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쓰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문서에 어떤 말을 써야 할지, 사업의 명분은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인지, 잘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역시 제가 의지할 곳은 새일센터의 국장님이었습니다. 제 고민에 국장님은 흔쾌히 사업계획서를 코칭해 주시겠다고, 그것도 이앤에스컨설팅 대표님이 직접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받았고 제 감당대로 사업계획서를 마치 대학 논문 쓰듯 써 내려갔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사업계획서를 국장님과 대표님은 꼼꼼히 살펴주셨고,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은 그 후로 두 차례 줌(zoom)으로 만나며 사업계획서를 바로잡고 수정했습니다.

덕분에 제 사업계획서는 두 군데 모두 합격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아쉽게도 두 군데 모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었지만, 큰 금액을 정부 지원받았다는 사실과 제가 하는 일이 타당하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창업 교육이 창업동아리로 이어진다.

교육만 받으면 끝날 것 같았던 새일센터의 지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수료생 일곱 명은 다시 창업동아리로 뭉쳐서 새일센터의 후속 지원을 받아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과 편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교육을 연달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동아리가 연이 되어 저희끼리는 자주 만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거듭났고, 최근에는 센터에서 진행한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가’ 자격증도 같이 따는 작은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책방 창업을 현실이 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책방 창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충남의 25개 기업 양성에 포함된 것이지요. 오래 꿈꿔왔던 일이기 때문에 일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내포 신도시 동네 책방 1호’가 될 저희 책방 ‘소란 서림’은 지금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며, 올가을에는 책방이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눈앞에 두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올 초에 제가 새일센터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새일센터와 새일센터에서 하필 창업을 주관하고 계신 국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저와 같은 여성, 엄마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다들 한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었는데 현실이라는 틀에 갇혀 자꾸만 안으로, 작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간판, 그 이름만 보고도 웬지 힘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간판이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꿈꿀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 같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여성, 엄마들이 그 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저처럼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꿈을 찾아준 새일센터와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신 만큼 앞으로 책방 운영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볼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리 활동(홍보영상 제작)



사업사례 발표



최우수상

우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버텨야 한다는 말의 무게

3년 전, 나는 ‘온라인 마케팅 운영자 양성과정’ 수료식을 지켜보며 18명의 수료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을 함께 목격했다. 그중에서도 미○씨는 유독 빛나던 수료생이었다. 수많은 수료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마케팅 부서에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씨에게서 자주 걸려 오는 전화의 내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업무 관련 질문이었으나 점차 퇴사 고민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녀의 고민을 듣고도 “그렇게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죠.”라는 조언만을 해주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즘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는 그녀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한참 동안 그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어떤 상담사일까? 나는 정말 내담자와 소통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인가?’ 지금까지 그녀에게 주었던 조언은 좋은 회사를 찾기는 쉽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질문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상담 방식과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고민을 넘어 꿈을 향한 첫걸음

며칠 뒤, 미○씨와의 집중 상담을 통해 그녀가 오래전부터 본인만의 사업을 꿈꿔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 제 가게를 열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판매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꿈을 향한 열망으로 반짝였다. 미○씨는 시부모님이 공주 정안에서 밤농사를 짓고 있어 그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상점 전문 마케터 창업과정’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며 그녀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을 보며 나는 그녀를 위해 꼼꼼히 창업과정을 준비하고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열정의 집합소 ‘우리 상점 전문 마케터 창업과정’의 시작

드디어 ‘우리 상점 전문 마케터 창업과정’의 모집이 시작되었다. 미○씨를 비롯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의 상담문의가 기대 이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교육이 꼭 필요한 17명의 교육생을 엄선하여 선발하였다. 초기상담을 통해 지역 내 구직자들에게 높은 기대와 관심이 쏠려있음을 확인하며 담당자로서 내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나는 교육 시작부터 항상 교육생들과 함께했다. 첫날부터 수업을 참관하며 교육생들의 수업 진행과 재료 준비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다. 교육 초기에는 모든 교육생과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각자의 창업 의지와 목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과 부족한 점을 파악했다. 교육생들과 솔직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 자세히 듣고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이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개별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현장에서 배우는 창업

교육생들의 안목을 넓히고 더 나은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 계획했던 3회의 현장 견학을 추가로 시행하여 총 4차례의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창업자들이 어떤 노력과 아이디어를 투여하고 있는지를 교육생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고 싶었다. 특히 교육생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세종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촬영 장비 기술 강의를 실시했다. 이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은 실제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또한, 그룹별로 구성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고 실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전국으로 송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방송에서 1, 2등을 선발하여 시상식을 개최하며 교육생들의 사기를 높였다. 미○씨는 시부모님이 공주에서 재배한 밤으로 만든 식빵을 방송에서 소개하였고 그 결과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생들은 더 많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시흥의 우수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기업인 인재숲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운영 방식 및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교육생들이 참여하여 실제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다원 협동조합의 탄생 - 공동의 목표를 향해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미○씨는 다른 교육생들과 긴밀히 교류하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씨는 밤을 주재료로 한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생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결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미○씨는 교육생들과 함께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녀의 제안은 많은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고 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교육생 간담회에서는 센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 및 협동조합(공주향협동조합, 탄소영협동조합)을 설립한 선배들의 사례를 들려주고 교육생들에게 좋은 영감을 전달하였다. 또한, 그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교육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통과 협력으로 빛난 창업과정

일자리 협력망에 참석한 공주산성상권활성화사업단 외 6개 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카톡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공모사업 및 각 기관의 지원 사업 등을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었다. 또한, 11명으로 구성된 강사진들과 원활한 소통은 이 교육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강사들과 항상 연결되어 문제점과 수업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며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이 점차 마무리를 향해 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강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강사들의 일정으로 인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줌(zoom)을 활용하여 원격 회의를 개최하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드디어 우리의 교육은 평범한 출발에서 시작하여 한 사람의 낙오 없이 17명 모두가 수료를 마치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직훈의 시작은 사후관리

교육이 끝날 무렵, 2차 일자리 협력망을 개최하였다. 1차 일자리 협력망에서는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 2차 일자리 협력망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 진행되었다. 공주산성상권활성화사업단은 교육생들의 창업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밤밤산책 판매지원 사업’에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 이 지원은 교육생들에게 창업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생들의 아이템을 설명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자문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농업기술센터는 기꺼이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바로 마켓’ 직거래 장터에서 2개의 부스를 교육생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자신의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시청자 미디어재단과의 협력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사업에 공모를 선정 받아 교육 이후에도 충분한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교육도 진행되었다.

창업 열정이 피어나는 순간들

이로써 미○씨를 비롯한 총 7명의 교육생은 창업동아리를 구성하고 미○씨의 아이템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구성되어 갈수록 명확한 정리와 시장조사, 재무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컨설팅이 진행되었다.

특히 새일센터는 기존에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선배들을 멘토로 연결해 주어 현실적인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배 멘토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해결방법을 공유해 주었으며 이는 미○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또한, 미○씨와 그녀의 동아리 회원들은 제품홍보와 판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함께 고민했다. 이를 통해 미○씨는 초기 마케팅 활동에서 큰 도움을 받았으며 지역 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씨의 협동조합이 대전의 유명 백화점에 입점할 기회를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백화점 입점은 그녀의 사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이는 미○씨와 협동조합에 더욱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미○씨의 협동조합이 이 중요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하며 백화점 입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새일센터는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씨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그녀가 그려낼 새로운 성공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최우수상

같이 고민하고 함께 돌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비나래(이하‘사비나래’)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사비나래에서 운영하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센터(이하‘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발달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일상생활을 개선하며 사회적 통합을 돕는 기관으로 돌봄의 역할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비나래의 종사자 모두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의 주 업무가 발달장애인 돌봄과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사회성 개발과 신체 활동, 직업 훈련 및 문화와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인력의 중요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지방 소재의 소규모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인력 채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워크넷을 비롯하여 복지넷과 지자체 게시판 등 여러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채용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았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문의는 많지만, 인력채용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부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부여새일센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화문의를 드리고 취업상담사 선생님이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새일센터의 취·창업 지원과 중점사업 등을 안내받으며 신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인력 소개가 빠르게 진행되기란 어렵지 않을까?’하는 불안함도 있었지만,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매칭시키고 직무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상담과 알선으로 면접까지 진행하여 총 2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접하는 발달장애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업무를 시작하신 이○○ 선생님. 그녀는 지난 경험과 열정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학습이나 사회성 향상, 예술치료 등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능력과 흥미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과 같은 헌신적인 직원 덕분에 우리 센터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은 센터의 큰 자산으로 앞으로도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비나래와 새일센터는 취업 알선으로 시작된 인연이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발달장애인 곁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환경에서 잠시나마 여성 종사자의 휴식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 장애인들과 남성 장애인들이 별도의 휴식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

다. 새일센터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참여하게 되었고 지원업체로 선정되어 휴게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님의 세심함과 적극성에 참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휴게실로 개선하여 따뜻한 바닥에서 잠시 눈을 감고 쉴 수 있는 공간,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 개인 사물함 비치 등 편의성이 향상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일센터와 연계하여 ‘23년도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부여군과 맺게 되어 앞으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확립과 여성인력 적극 채용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 현재 사비나래는 새일센터의 자문을 받아 직장문화 개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신청 중입니다.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노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관리 재직자 교육의 진행으로 종사자들 사이의 소통과 힐링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다소 경직된 분위기보다는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조성으로 서로 간의 이견과 불편함을 이해하고 배려와 격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직장 내 문화가 개선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부여군은 농촌지역으로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이나 전문적 도움을 얻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과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실무교육 등을 지원해주고, 특히 우리 센터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보조금 연계와 인증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주기적인 관리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미팅과 워크숍 등을 통해 의사소통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상호 발전되는 사비나래와 부여새일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선생님이 이용자와
학습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창의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모습



새로이 꾸며진 여성휴게실 모습



새로이 꾸며진 여성휴게실 모습



여성휴게실 전 모습



여성휴게실 전 모습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관리 재직자 교육 모습



찾아가는 일·생활 균형관리 재직자 교육 모습



가족친화 인증 신청 대면 컨설팅 모습



가족친화 인증 신청 대면 컨설팅 모습



여성친화 기업 협약식



여성친화 기업 협약식



당진 새일 업고 뛰어~~~!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공감과 이해로 현실 마주하기 심층 상담

“돈을 벌어야 해요~~!” 단도직입적인 그녀의 첫마디!!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하기 위해 앉자마자 한 첫 마디였다. 현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애절한 마음이 그녀의 한마디에서 느껴졌다.

그녀의 스펙은 세무학과 전공자로, 전산세무 1급을 포함한 여러 전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유관 직종 경력이 없는 그야말로 경력단절 여성이며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막내는 미취학 아동이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배차 간격이 길어, 자차없이 아이들의 등하원을 병행하며 정해진 출근 시간을 맞추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당진시는 주거생활권과 산업단지 근무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남편의 양육지원 없이 세 아이를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낼 준비까지 혼자 하기에는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결국에 제자리 걸음만 할뿐이었다.

오랜만에 머리 굴려보기~~~!! 직업교육 훈련 참여

초기상담을 거쳐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관련 자격증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상담지원 하였으며 교육생으로 선정되어 전산 관련 자격증 4가지를 다시 취득하였다.

직업교육 훈련 초기 ‘머리가 안 굴러간다.’라며 전산회계 공부를 다시 하며 어려워했던 그녀의 허심탄회한 말에 웃음도 나고 이해도 되었다. 힘들지만 2주간의 고비만 넘기면 적응될 거라며 유독 챙겨줬던 교육생이었다.

녹록지 않은 과정 맞춤형 구인발굴 및 분석, 입사지원 종합 컨설팅 직무분석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과 상담 알선을 통해 입사지원을 수차례 하였다.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 지원자로 구인처 인사채용 담당자에게 적극적인 추천으로 면접까지 응시하였지만 세 아이 엄마라는 점 그리고 막내가 미취학 아동에 기동력도 동반되지 않는 점은 미채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면접관들의 고정관념 틀에 대비하여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도 코칭 해주었지만 지원 경력자들에게 번번이 밀리기 마련이었다. 몇 달간의 구직활동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고 고배를 마신 후 지원자는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자주 상담전화를 하여 근황 확인 및 채용정보를 제공해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사무직 지원은 계속 탈락하는 것 보니 그냥 제조업 생산직으로 취업해야 할 것 같다는 말에

“생산직 구인 수요는 많기 때문에 취업은 쉽겠지만 아이들 보육문제로 주·야간 근무 시 장기근속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역량들이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더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고 설득했다.

“분명히 선생님이 원하는 곳이 한 곳은 있을 거예요!”라며 달래 보았다.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었다. 2주간의 기간을 목표로 세우고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구인정보 서치를 집중적으로 했다. 사람인, 워크넷, 지역구인 광고지, 아르바이트 전문 앱까지 ~~~!

당진 시내권 도보 30분 이내 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 거리, 주 5일 근무에 주 40시간 근무 야근 및 특근이 없는 곳! 구인 요건 검색을 하며 반드시 있을 거라는 목표를 갖고 잡(job)서치를 하기 시작했다. 눈에 들어오는 구인정보를 보게 되면 바로 인사채용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여 지원자의 요건을 상세 설명하며 지원 시 채용까지 고려해 달라며 서류 지원하였다.

드디어 두둥 눈에 들어오는 곳은 ○○기업 계약직 소상공인 지원업무였다.

시내권으로 주거지에서 도보로 30분 소요 거리로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 업무 외 데이터 전산입력 업무였다. 사무직 초기 경력을 쌓기에는 적합한 곳으로 생각되어 인사채용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였다. 직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원 발생의 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근무자들의 트러블로 한 명이 바로 퇴사하여 공석인 상태로 면접에서 합격하면 바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입사지원서류를 지원하고 지원자의 상담 가능 역량을 피력하였다. 채용담당자의 면접을 보고 싶다는 답변을 듣고 바로 그녀에게 전화하여 면접 코칭을 하였다. 우선 직무수행 가능 역량으로 민원응대 서비스마인드, 불편사항 접수 시 대응방법 등을 코칭 하였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민원 불편사항들을 접수하고 대응해야 하는 업무로 직원들과의 소통과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만큼 지원자의 성격적 강점들을 업무 수행에 빚대어 피력하도록 면접 코칭을 하였다.

그 결과 합격~~!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래요~~!”

수화기 너머로 기쁨에 찬 목소리가 전해졌다.

“너무 축하드려요!! 와~~~! 드디어 출근하게 되었네요!”

“잘하셨어요!”

시내권 주 5일, 사무직 업무로 업무의 전문성은 약하지만, 초기 경력을 쌓는 데에는 괜찮은 조건이었다.

많이 힘들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경력단절 예방 사후관리 고충상담

출근 후 적응 기간 동안은 틈틈이 상담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근무 시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워킹맘으로서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의 생활변화와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보육문제도 상담해 주었다. 계약만료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꾸준히 하였고 1년이 채 안 되는 계약직이지만 사업 운영기간이 연장되며 만료 후에도 업무 성실성을 인정받아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기근속 일자리가 아니므로 장기근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 구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초기 경력 기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자리 이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상담 관리하였다.

때마침 계약기간 만료 후 초등학교 건설을 위한 감리 사무단 일반 사무원 채용건이 눈에 들어왔다. 기존 근무지와 5분 거리였다. 건설 현장 사무직으로 한글 문서작성 능력,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가능자 지원 요건이었다.

계약직 근무 형태였지만 사무직 경력을 쌓을 기회라 생각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파워포인트 사용 경험이 너무 오래되어 지원을 망설였다.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전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너무 오래되어 기재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번이라도 활용 경험이 있을 때는 재수강을 하게 되면 최신 버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어 꿈날개 온라인 교육과정을 안내하며 속성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추천했다.

‘그럼 서류 지원 한번 해볼게요~~~!’, ‘교육 수강도 해볼게요~~~!’, ‘그래 됐어~! 해보자~~!’

꼭 채용 합격시키겠다는 나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지원 의사는 있지만 면접에 대해 두려워하는 지원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서류전형 합격해서 면접 보게 되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구인 요건에 선생님의 조건이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요건에 구인 업체 조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원자는 울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수많은 구인처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하시잖아요!’

‘구인처에서도 선생님이 적임자라 생각하면 꼭 채용하고 싶어서 업무 내용 및 구인 요건들을 맞추어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신다고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응원의 메시지와 코칭에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지원하였다.

‘전화위복’ 옛 속담을 절실히 체감 채용조건 상담 조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인사채용 담당자에게 메일 전송하고 서류전형 합격 시 직접 연락이 갈 수 있으니 꼭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리고 나서 구인기업에 전화하였다. 상무님은 지원자가 있다는 말에 바로 서류 검토 후 연락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이 지나 상무님에게 연락이 왔다. 지원자 이력사항이 마음에 들어 내일 면접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혹시 지원 포기로 회피하는 거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였다. 그럴 그녀가 아닌 걸 알기에 침착하게 생각해 보았다.

시간을 보니 오후 4시경

“아마 아이들 하원으로 케어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지. 급여가 낮아서 그런가? 최저임금이라 포기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셨다.

“급여가 낮긴 하죠.” 나도 모르게 적은 급여에 대해 동의하였다. 그러자

“입사지원서류를 보았을 때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그럼 한 50만 원 급여 인상해 주면 되나요?”

“어머, 정말요? 그럼 너무 좋죠~!”

말은 그렇게 하셔도 현실적으로 월 50만 원 인상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사실이라 믿지 않고 웃으며 답변했다. 그리고 상무님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 전화해 보고 연락이 되는 데로 상무님께 꼭 전화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혹시 상무님 퇴근 이후라도 통화가 되면 전화드려도 될까요?” 하고 묻자,

“그럼요 꼭 전화 주세요.”라며 전화 통화를 마무리했다.

전화가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역시나 통화가 안 되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연락을 회피할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남겨 놓았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갈 무렵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정말 아이들 케어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었고, 구인처 통화 내용을 전달하며 바로 상무님께 전화 하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급여 인상도 고려해 보고 계시다는 말을 전하고 면접에 응할 때 겸손함을 겸비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다음 날 오전,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전화가 왔다. 급여도 처음 구인등록 때보다 월 50만 원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요? 50만 원을 진짜요?”

“와~~ 너무 축하해요”

“너무 잘 됐어요! 드디어 해내셨어요~!”

이제 어찌 된 일인가 서로 전화 통화가 안 되어 중간에서 절절매던 어제의 상황이 지금도 확연한데 오히려 그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리고 원하던 높은 급여를 받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어서 생각보다 더 나은 채용조건에 내 일처럼 기뻐다. 감리사무단 취업 후 상무님과 그녀에게 취업

후 사후 상담관리를 위해 전화를 하였다. 두 분 다 만족스러워했고 특히 상무님께서서는 책임자를 추천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몇 달이 지나고 초등학교 공사 기간 만료일 다가와 연락해보니 중학교 공사까지 수의위탁을 받으며 업무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재계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단계 성장하며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여 사무직 경력 3년을 쌓게 되었다.

‘before & after란?’ 퍼스널브랜딩 취업준비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아이들 방학 동안 못다 한 휴가를 즐기며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로 했다.

“선생님 쉬는 동안 취업준비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 수강하실래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교육입니다.”

“네 해볼게요!”

“그리고 사후관리사업으로 40대~50대 여성 구직자들 대상으로 퍼스널브랜딩 프로그램 모집 중인데 수강 신청해 드릴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점프하고 싶었는데 네 그 과정도 해볼게요!”

수업 내용은 총 16시간은 긍정마인드셋, 스트레스 관리법, 신체 이미지 관리, 퍼스널 슈퍼리더십, 음성 이미지 연출법, 워킹까지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모델처럼 일렬로 서서 스테이지를 누비고 서로 웃고 박수 쳐가며 볼이 아플 정도로 응원의 환호성으로 강의실은 들쭉들쭉했다.

그렇게 집체교육을 마치고 1:1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안경을 벗고, 볼 터치까지 꼼꼼히 하고, 헤어까지 손질을 마치고 나니 이게 누구인가 정말 TV에서 보던 ‘before & after란? 이런 경우를 말하는구나!’를 체감하며 낯선 마음과 감탄의 마음이 교차했다.

4년 동안 그녀를 상담지원하며 지켜있는 심신과 이미지 변신을 위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 같아 추천했었는데 지금의 그녀는 처음 보았을 때 위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자신감 없어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외모의 이미지 변신뿐만 아니라 확언에 찬 말씨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말들을 들으며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이게 가능한 걸까?’라는 의구심 뒤에는 그녀의 실천 의지들이 있었다.

매일 자신에게 칭찬 3가지 실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3가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 기간의 공백 기간을 깨고 다시금 앞으로 달려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휴식 기간이 재도약을 위한 충전의 기간이 되길 바란다.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당진새일이 있기에 응원할게요!

자 다시 한번 **당진 새일 업고 튀어~~!**





아들 셋 엄마의 두 번째 인생, 시니어 강사로 거듭나다



아들 셋을 둔 엄마의 도전기

나는 아들 셋을 둔 엄마로, 오랜 시간 경력단절로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주부로서의 삶 외에 내가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위해 직업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결혼 전 사무직으로 일한 경력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았다. 오랜 기간 경력단절로 인해 자격요건이 부족해서 단시간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러던 중 아산새일센터에서 [실버케어치매관리사 과정]을 양성한다는 공고를 보고, 곧장 센터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신청기간이 남아 있어 바로 치매 예방 관리사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았다. 고령화 시대에 떠오르는 유망 직업으로, 실버 강사, 시니어 강사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어르신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 더욱 관심이 갔다.

사회에 다시 첫발 내디딘다는 것만으로 두려운 마음이 앞서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지만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다. 나의 취업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내 자신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다. 마치 훈련생으로 선발된 것처럼 거울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트로트를 들으며 어색하지만 손짓, 발짓과 몸동작들을 맞춰보며 시니어 강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센터 방문을 기다렸다.

설레임을 안고 센터와의 인연을 만든다.

아산새일센터 방문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전화로 문의를 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오시면 상담해 드릴게요.”라는 상담사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도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느낌이었고, 내 가슴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설레었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센터로 바로 달려갔다.

아산새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상담사분의 교육과정에 대해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듣고 나니 더욱 최종 선발이 되고 싶었다. 이러한 작은 희망을 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사님께 털어놓았더니, 최종 결과가 불합격이더라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며 다른 일자리도 연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 덕분에 취업 상담 뿐 아니라 교육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고,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

드디어 서류에 통과되어 면접 준비에 돌입했다. 선발과정 면접이라고 하지만 확고한 각오를 세웠기에 쉽게 생각하지 않고 면접 질문지와 면접 영상을 찾아보며 연습을 했고 그 결과 최종합격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아산새일센터에서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발라드에서 트로트로 흥이 난다. 흥이 나~

실버케어치매관리사 교육생 20명 안에 아들 셋 둔 엄마라는 이름이 아닌 [학생 박종미]로 2개월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남편과 아들 셋 앞에서 선서했다.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교육 장소가 대학 강의실에서 교육이 진행되어 학창 시절 분위기에 맞춰 발라드 음악이 아닌 트로트 메들리로 신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실버인지통합교육 내용은 교육방법론 학습, 시범 강의시연, 피드백 등 시니어 강사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타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강사분들이 강의를 맡아주셨다. 조별, 개인별 과제가 많아 늦은 시간까지 준비했고 단 한 번의 지각과 결석 없이 교육에 참여했다. 3일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배운 내용을 시연해 보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실버인지통합교육으로 실버인지, 체육, 미술, 음악 프로그램 중 어르신들의 뜨거운 반응은 역시 트로트 음악에 맞춰 신명나게 건강하게 함께 하나 되어 저절로 흥이 난다. 흥이 나~ 자신감과 순발력이 키워지고 어르신들의 뜨거운 응원의 박수로 현장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184시간의 수업 시간에 실무에서 바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의 시연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추억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시니어 강사 박종미

실버인지돌이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했다. 그러나 실버강사, 시니어 강사 채용 구인처를 찾기 어려웠다. 2개월 동안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경력과 경험이 부족해 바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정기적인 스터디를 결성해 아산새일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교육제안서를 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요양원 등에 여러 번 수정해 가며 직접 방문해 교육 설명과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시니어 강사 박종미]를 당당하게 알리며 실무에 집중했고, 자원봉사 참여하며 나를 알리는 데 노력했다.

아산새일센터를 통한 터닝포인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산여성새일센터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이었다. 강사로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많은 강의 경험을 쌓은 경력이었다. 초보강사가 강의할 기회는 지속해서 봉사하는 방법이었다. 새일센터 담당자께서는 봉사할 수 있는 기관까지 직접 섭외해 주셨고, 저희가 봉사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해 주시며 끊임없는 격려를 해 주셨다. 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뒤로도 저는 강의 경험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며 시니어 강사로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실버인지돌이지도사 1급을 비롯해 10개에 가까운 자격증을 취득했고 12월 (사)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채용공고에 합격하게 되었다. 또한 (주)대교 에듀캠프 트니시니어 신체 및 뇌 꿈틀 강사로 채용이 되어 현재 경로당, 주간 보호센터와 요양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흥이 난다, 흥이 나는 시니어 강사로

작년 이맘때쯤 아산새일센터에서 실버케어 치매예방관리사 양성과정을 수료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 넘게 열심히 달려왔다. 아산여성새일센터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때가 나 자신이 제일 잘한 순간이 아니었는지 생각한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아산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시작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그 길을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경력단절로 막막했던 주부의 삶에서 취업에 성공한 당당한 시니어 강사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경험을 쌓아 향후 시니어 강사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도 열심히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산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이루시길 응원한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도움을 준 아산여성새일센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장려상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꽃이다, 부여성일센터는 취업에 꽃이다.



고령 친화 도시 부여군

부여군은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로부터 야외공간,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8개 영역 84개 세부항목에서 WHO가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하여 고령 친화도시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충남 부여군의 인구 6만 1,046명 중 2023년 12월 기준 노인인구가 39.3%인 2만 4,032명으로 인구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부여군은 2025년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관내 3,345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생활 지원사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4월부터는 어르신의 병원 진료 예약부터 귀가까지 매니저가 동행하는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구인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부여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맞춤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계획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적극적인 홍보

1월에 1,500여 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부여성성새로일하기센터 밴드를 활용하여 직업교육 훈련 예정 계획을 홍보하고 부여성일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관내 아파트를 돌며 게시판에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5,400여 명이 가입된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카페에 공지사항을 활용하고, 부여군가족행복과 협조하여 부여군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지역소식, 부여군청 페이스북, 지역신문 광고, 부여군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온라인홍보 등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또, 차량통행이 많은 육교와 각 읍·면에도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마트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다.



꿈날개를 활용한 소양 교육

경력단절 여성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가 있는 꿈날개를 활용하여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한 예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생이 꿈날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명확한 직업 목표설정 및 자기분석을 하고 직장 예절교육을 수료하여 취업 시 도움이 되도록 하여 교육생 전원 100% 수료하였다.

실무중심 커리큘럼

2022년 사회복지사 직업교육 훈련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사회복지 과정이 되도록 2024년 직업교육 훈련 커리큘럼에 대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2023년 11월에 개최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의 의견 청취 및 직업교육 훈련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직업교육 훈련이 되고자 간담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인처 및 구직자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했다.

2024년 5월에는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9개 기관 일자리 협력망을 개최하여 공공·민간 취업 알선기관 간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취업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로 상호 지속적인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업 시작 전 1:1상담과 전산실을 개방하고 전산실을 사용할 때는 교육실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업 끝나는 시간이 점심시간과 겹쳐 주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진행했다.



현업 관리자의 대상자와 사회복지 기관의 이해 교육

구직자가 취업처에 대한 방향성 정립 및 취업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현업에 근무하는 관리자를 직접 강사로 섭외하였으며, 교육이 끝나기 전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하여 직훈생과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직종에 맞는 컴퓨터 교육

현재 대학에서 여성 재취업 과정 등 활발히 활동하는 강사를 섭외하여 교재 위주 강의에서 벗어나 최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글 및 엑셀은 물론 사회복지사 직종에 맞는 동영상 제작 및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강사님이 수업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교육생 테스트와 눈높이 질문으로 강의 레벨 수준을 정했고,

교육생의 피드백을 수시로 강사님에게 전달하며 협력했다. 강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움 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교육생들은 아침 일찍 와서 미리 컴퓨터 수업을 복습하고 연습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또, PC 능숙자의 자리를 따로 재배치할 것 없이 PC를 잘하시는 분과 다소 서툰 분이 서로 도움며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실무 밀착 사회복지 기관 시스템 교육

현업에서 사회복지사로 8년째 근무하고 계신 관리자를 강사로 섭외하여 실무 밀착 교육을 제공했다. 강사님은 후배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마음으로 186페이지의 강의 자료를 손수 만들어서 성심껏 강의했으며, 강의 마지막 날에는 교육생 모두에게 핸드타월을 선물해서 감동을 주었다. 또, 교육생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연락하라고 개인번호를 알려주어 든든한 멘토가 되었다.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자격증 취득 교육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꽃이다.'

사회복지사가 멀티플레이어로 활동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육생이 취업 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도움이 되고 교육이 재밌게 느껴지도록 실버인지놀이와 실버웃음레크지도 과목을 편성해서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도 함께 진행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실버인지돌이지도사는 노인 두뇌훈련 지도사라고도 하며,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전망 있는 분야의 민간자격증이다.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많아 교육생의 반응이 좋았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두 명을 제외한 총 세 명이 실버인지돌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에서 진로상담까지

신입 사회복지사가 사업계획서 업무를 하긴 어렵지만, 미리 배우면 실무를 할 때 도움받을 수 있어 추천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교육은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 교육생이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실습을 해보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사님은 공공기관에서 진로상담을 오래 한 경력이 있어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교육생의 진로상담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인상 깊었던 12년 경력 상담사의 꿈날개 이력서 클리닉

경력이 단절된 교육생이 많아 꿈날개 취업지원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신청할지 고민하다 이력서 클리닉을 신청했다. 꿈날개 담당자와 연계하여 대면 교육으로 요청을 드렸다. 멀어서 대면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여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상담 경력 12년의 전○○ 상담사님을 배정해주었다. 베테랑 상담사님이 적극적으로 1:1로 교육생에게 다가가서 소통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컨설팅하는 부분은 인상 깊었다.

화합의 시간, 선진지 견학

교육이 끝나기 하루 전, 선진지 견학으로 서천군 복지마을에 방문했다. 가기 전부터 교육생들이 강의 시간표를 보고 우수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너무 좋다고 기대된다는 의견을 주었던 교육이었다.

군에서 마련해 준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교육생 한 분, 한 분의 앞으로의 취업 계획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다. 교육 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하기는 했지만, 교육 수료 전 마지막 상담이라 더 중요했다.

상담을 해보니 취업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을 세워둔 교육생들이 많아 기분이 좋았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하겠다는 분도 많이 계셨고 취업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분들도 많았다.

견학 장소는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보호작업장, 고령자 보금자리 주택 등이 한 곳에 있는 복합단지로 시설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타지역 복지시설 등의 벤치마킹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교육생들은 각 시설 관계자로부터 기관 소개 및 사업 안내, 운영 사례 등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며 시설 탐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관 방문이 처음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방문하게 되어 좋다며 관계자의 말씀을 적기도 하며, 직접 방문해 보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는 시간이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교육생은 견학해 본 경험이 있지만, 다 같이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고,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화합의 시간에는 교육생들과 서로 둘러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달 동안 제법 친해져서 언니 동생 하며 부르는 교육생도 있었고, 교육 수료 후에도 연락하자며 친분을 쌓아 가는 교육생도 있었다.

취업이 목적인 교육이지만 취업에 대한 정보 교류도 하고 지원을 권유하는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관계로까지 발전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이 교육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만 같아 뿌듯했다.



현직 노무사의 핵심만 국, 노무 교육

마지막 날에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2024년 노동법과 최근 개정된 사항에 관련해 교육했다.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무 교육은 취업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라 그런지 다들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다.

교육생의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진행 중

강의 후 수료식을 진행하였으며, 부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님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셨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교육생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앞날을 응원했다. 지역 맞춤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직업교육 훈련의 수료율은 100%를 달성했으며, 교육 수료 후 두 달이 넘어가는 지금 17명의 교육생 중 6명이 취업하는 등 교육생의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저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채○연 선생님은 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후 14년 만에 포장 업무를 맡으면서 다시 사회에 발을 디뎠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포장 업무를 하는 것이 내내 안타까웠던 담당선생님이 사회복지사 직업교육 훈련 예정을 안내하자 교육 시작일을 손꼽아 기다리셨다.

처음 만났을 때 위축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무 경력이 없어 취업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취업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그녀에게

“물론이죠”라고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그녀는 교육 기간 내내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강의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해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적극적인 분이였다.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 취업에 대한 고민도 많아서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교육이 한 달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 그녀가 교육생 오픈 채팅방에 올린 채용 정보를 보고 교육 도중 바로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다. 열심히 교육을 수강하시는 분이라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여쭙보았다. 종일제가 아닌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 근무면 처음 맡은 업무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취업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열정이 느껴져서 그녀에게 응원과 지지를 드리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구인처에 직업교육 훈련생이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리니 흔쾌히 바로 면접 일정을 잡아주셨다. 동행 면접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기뻐하며 좋아했다. 동행 면접 날 그녀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면접관이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하며 꼭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 3일 뒤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구인처에서 배려해 주어 그때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면접에서 채용 합격까지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녀와 나, 구인처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가 출근하게 된 날, 교육생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취업을 축하했다. 첫 출근날,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기쁜 마음으로 묻는 나에게 그녀는 회사에 다니기 힘들다고 첫마디를 꺼냈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처음은 힘들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녀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 그녀도 수긍하며 다시 힘내볼 것을 다짐했다.

다음 날, 구인처에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출근을 안 했다는 것이다. 놀라서 그녀에게 전화하니 출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회사에 미안해서 그만 다니겠다는 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녀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용기 있게 도전했으나 역량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 이해하기로 했다.

이틀을 쉬 후 그녀는 다시 힘을 내서 교육을 마저 듣고 취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너무 일찍 퇴사를 결심한 그녀가 야속했지만, 내일부터 교육에 오시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가 요구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녀와의 대화를 되짚어봤다. 사회복지사로 처음 근무하는 그녀가 취업을 망설였던 이유는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수료의 시간이 다가왔다. 끝까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성실함을 보여준 그녀에게 사회복지사로 재취업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저번처럼 바로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다짐 받고, 구인처에 업무를 잘 알려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전화를 돌려서 일일이 확인했다.

“저희 부여새일센터 사회복지사 올해 직업교육 훈련생 선생님이 사회복지사를 지원을 희망합니다. 사회복지사로 경력은 없으나 성실하며 밝은 성격의 선생님입니다. 이끌어주시면 잘하실 분입니다. 업무에 대해 잘 알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저와 일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경력단절이었고 처음에 알려주는 분이 없어 고생했지만,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은 저처럼 헤매지 않도록 제가 잘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다!! 여기면 그녀가 적응해서 잘할 수 있겠다 싶어 바로 그녀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이력서를 전달받아 아래같이 코멘트를 써서 이메일을 보냈다.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채○연님은 24년 부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생으로 6월 3일 수료했습니다. 성실하며, 배우려는 마음이 크신 분입니다.

잘 이끌어주시면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으로 지원 희망하여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 발송한 다음 날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었다. 면접 확인차 전화하니 구인처에서 좋은 사람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다. 너무 기뻐지만, 그녀가 하루 출근하고 그만두었던 일이 떠올라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며칠 뒤 취업확인서를 요청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통화상으로도 너무 좋은 분이신 게 느껴져서 채○연님과 함께 근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봐주시고 채○연님이 지원하고 싶다고 하여 서로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연님의 취업확인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선임 후임이라는 표현이 아닌 ‘너무 멋진 파트너’로서 의지하고 도우며 발전하는 관계로 오래 함께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대하던 답이 돌아왔다.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의 걱정은 기우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사회복지사의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아오르길 소망해 본다.

장려상

밤하늘에 수놓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구직자



1.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여러, 수십 년 동안 함께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것? 취미는 무엇인가요? 질문과 같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구직자들을 위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시간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입니다.

2.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는 공주새일센터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SNS 등 홍보를 기반으로 공주시 내에서 있는 여러 맘카페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생의 사전 교육 진행·고용복지+센터 집단프로그램 연계(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알선 시 구직자들에게 문자 및 유선 상담 권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로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길이며, 어린 시절 시작했던 교육부터 결혼, 가정 더 나아가서 노후까지를 말합니다. 개인이 계속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의 종류,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 역시 진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하는 것은 경제적 보수뿐만 아니라 자기실현과 정체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시작은 출산·임신·육아 등과 같이 여러 이유로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중요한 부분인 자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뿌듯함·성취감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지 알아보는 것에 시작합니다. 그 이후 취업에 필요한 구직 기술과 역량을 확인해 보며, 마지막으로 현재 노동시장에 대해 자소서·이력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퍼스널컬러진단 특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비교적 내면보다는 시각적인 요소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의 한 단계인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은 개인의 피부 톤, 눈동자·머리카락 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외모를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며 취업 면접 등 중요한 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무거운 발걸음과 노크 소리와 함께 온 김○○님은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센터로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의 간병으로 타지에서 지방인 공주시로 오게 되었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던 중 SNS를 통해 새일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 간병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김○○님은 현재 상황에서의 취업 어려움을 호소했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숨을 여러 번 쉬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김○○님과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걱정되는 점이나, 고충을 공감하며 오랜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공주시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김○○님의 요구사항과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하는 직종에 찾지 못한 막막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불안함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권유하였습니다. 불안함과 걱정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과거에 경험이 있는 고객센터의 상담사,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어도 ‘일’이면 할 수 있다는 의욕이 가득 찬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님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3.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대효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달라지는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자신감 향상과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다른 구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스스로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워크넷 직업 가치관 검사와 같이 심리검사를 진행하면서 자기 이해 능력이 향상됩니다.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상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재취업 성공과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각자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이 되었지만,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2인 이상의 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힘과 에너지가 취업의 희망 동기유발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동질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주시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 형성 및 인적 네트워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4. 집단상담 프로그램 첫 진행

처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늦잠을 자게 되는 게 아닐지, 말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하는 여러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걱정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진행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 번 연습했지만, 막상 앞에 서서 이야기하니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손도 같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직업정보들을 제공하고 싶은 서툰 마음이 말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며, 발음 역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끝낸 집단상담의 진행은 아쉬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말투·억양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과 동료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정형화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직업에 대해서 실제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른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소통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첫 번째 집단을 진행한 이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아쉬운 점들을 일기로 작성하면서 자아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행에 있어서 깊은 연륜과 많은 사회 경험들이 있는 구직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하던 중 동료 선생님께서 한 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직업상담사를 자격증도 가졌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생각을 말아야.”

해주신 말로 걱정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부족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전보다는 긴장감이 덜해지고 여러 선생님의 조언을 통해 전 회기보다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확장으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와 직업정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구직자들이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것이 신기하며, 이러한 직업이 있는지 몰랐다는 구직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행하는 수업으로 인해 직업세계에 대한 변화와 재취업 가능 직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여러

직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구직자의 말을 들으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작소서·이력서와 같이 여러 구직서류 작성법에 대한 자료들을 따로 준비해 짧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직자들이 이면지에 제가 준비한 PPT 내용을 적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면서 밝아지는 미소로 채워지는 얼굴과 구직자들 발자취들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5.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

김○○님은 처음 집단상담에 참여해 홀로 타지에서 왔다는 생각에 다른 참여자와 쉽사리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집단상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참여자 역시 공주로 이사 온 것과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내 다른 구직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도왔습니다. 공통점을 찾은 김○○님은 그 이후 어색함 없이 다른 구직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달라지는 직업세계에 관한 내용을 들으면서“현재 이 나이에도 과거에 해왔던 고객센터 상담원뿐만 아니라 많은 직종에 도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직업 가운데 현재 부모님의 간병을 도와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집단상담이 끝난 오후에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김○○님은 매일 아침 집에서 나와 배우기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지금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센터로 방문했을 때 가지고 있던 반짝거림이 더 빛나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6. 밤하늘에 수놓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구직자

김○○님은 집단을 처음 진행하면서 만난 소중한 인연 중 한 명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 싶은 것,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동자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구직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에 도우며, 빛나는 꿈을 더 빛나게 노력해 주는 묵묵히 같은 가짐을 가진 밤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주새일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달라지는 직업세계를 이해하며 자신감 향상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두 발 열심히 뛰어다니는 직업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장려상

함께 성장하는 새일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부처 협업, 면접 지원을 통한 첫 만남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민·관·학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속적인 지역 시민과의 교류·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과 새일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가 함께하는 취업지원 네트워크는 꾸준히 지역사회 발전에 다방면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에서 진행한 공동주택정보처리 과정 직업훈련 과정 면접 지원을 도왔습니다. 면접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한 직업 훈련 교육 지원자들을 보면서, 많은 분이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하기를 응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지원자의 간절함이 돋보이는 눈빛은 단번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합격해서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열정이 넘치는 지원자를 마음속으로 더욱 응원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재취업 자신감 충전!

“한○○님, 공동주택정보처리 과정 직업훈련과정 면접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다음 주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 때 뵙겠습니다~”

저는 교생들에게 합격 축하 전화와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23명 중의 16명의 교육생이 참여 의사를 표했고, 2일간, 총 12시간 동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과거의 일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교육생들은 위로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분야, 직업세계의 변화 과정, 직업정보 탐색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면서, 교육생들의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과정이 끝나고, 교육생들은 서로 끈끈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고, 훈련과정에 대한 열정과 취업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도와주세요!

교육훈련과정 중에, 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제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데, 혹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첨삭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훈련과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취업 의사가 확고했던 구직자는 저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취업이 간절했던 구직자의 상황을 듣게 되면서, 희망 직종과 원하는 취업조건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직업훈련과정에 충실하도록 안내하며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공공기관 계약직 일자리 공고를 발견하였고, 지원양식에 맞추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먼저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저는 구직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를 바탕으로 한 줄씩, 자세한 메모를 남기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삭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을 완료했지만, 자신감이 없었던 구직자에게 저는 “도전하는 것 자체가 멋진 것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라며 응원했습니다.

최종합격! 합격은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다부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돕고자, 저는 주기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유선연락을 취하곤 합니다. 입사지원을 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 구직자에게 먼저 선뜻 연락하여 합격여부를 묻기가 어려웠지만, 안부 차 전화를 했습니다.

“한○○님, 안녕하세요~ 아산새일센터예요!” 저는 면접 합격여부를 먼저 묻기보다는, 직업훈련과정과 자격증 공부는 어떠한지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 합격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예요!”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맞이해준 구직자는 제 덕분이라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한○○님이 가꿔온 노력 나무에 가지치기만 살짝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라며 선생님께 축하와 격려를 통해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또한, 구직자가 경력 쌓기를 바라며, 그리고 고용유지를 높이고자, 처음 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배우고 조금씩 견디다 보면 경력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취업 With 힐링 타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순간!

아산새일센터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직장동료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위해 취업의 기쁨과 함께 간식을 나누는 이벤트로, 올해에는 수혜대상을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구직자와 시간약속을 조정하고, 아산지역에서 유명한 수제 쿠키를 포장해서 직접 취업처에 찾아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님이 취업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안부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무 환경, 일 강도는 어떠한지, 직장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구인처에 방문하여 취업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가 몰아치던 한 주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약속한 날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쳤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에 도착해서, 구직자에게 전화하고 기다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는 동안, 기쁨과 설렘, 뿌듯함이 동시에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구직자와 함께 손을 잡고 동동 뛰면서, 축하한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주고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경력 쌓고 더 좋은 곳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이번에 저의 취업 성공 경험이 저를 더 활력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자주 만나요!”

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직자들에게 늘 이 명언을 이야기해 드리곤 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페이스북 개발자인 마커저커버그의 명언으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유명인들도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난다.’고 전합니다. 저는 새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새일센터 내 선생님들과 다양한 구직자를 통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취업상담사, 전문성을 겸비한 강의, 구직자의

연륜이 묻어난 삶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끈기, 굽히지 않는 열정 등을 보면서 새일의 미래는 밝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많은 구직자가 경력단절에 대한 재취업 장벽, 나이 장벽, 새로운 분야 도전의 두려움 등 시도해 보기도 전에 걱정 모래주머니를 가득 안고 걸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력은 구직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을 시도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조력하는 것은 새일센터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일센터에서 일하게 된 이후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다고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곤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 구직자에게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만약 저에게 다시 경력단절의 시기가 온다면 새일센터를 기억하고 방문할 것입니다.



장려상

다시 시작하는 용기! 내 일(My job)을 위한 새로운 도약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이자 가족에 헌신하면서 살아온 요즘 같은 말로 경력단절 여성이 되어버린 42살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에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컴퓨터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평범하게 사무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향이 겁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전화받기, 손님맞이, 문서작성, 경리업무 등을 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는 활동적인 일을 좋아해서 사무직이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만두고 좀 더 활발한 일을 찾다가 대형 마트의 조리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저는 음식을 만들어내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관 위생 방침에 따라 청소하고 재고를 파악하는 일이 저에게 잘 맞았고 이를 자부심 있게 수행하며 근무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은 큰 축복이었지만, 아이를 누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사회와의 단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씁쓸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여성들도 결혼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어린나이의 아이를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슬프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이며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남 2녀 중 막내가 올해 3학년이 되면서, 예전에 아르바이트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다시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에 경력단절 여성이 된 지 14년이 되다 보니, 옛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처럼 세상이 많이 변해버려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막내가 더 크면 일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돈이 더 많이 들고, 자격증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복지박람회 행사장에서 찾아가는새일센터를 통해 처음 새일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조리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후라 조리직에 관심이 생겨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였지만, 단체급식조리사 직업교육 훈련이 종료된 후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해 신청을 희망하였지만, 단체급식조리사가 개설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논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정보제공의 날’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중에 단체급식조리사에 관심이 있어 2개월 훈련과정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14년 넘게 써보지 않았던 이력서를 쓰려니 막막했고, 면접에서는 면접관님의 질문에 얼버무리며 “죄송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선발 면접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뽑아준 것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낮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선생님들 사이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훈련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바닥이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훈련 중에 ‘나를 찾아가는 시간’은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기분을 좋게 해주었고, ‘할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점점 ‘잘해 나가고 있어’로 바뀌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점이 많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찾게 되어 좋았습니다. 사회초년생처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기술 등을 쉽게 알려주었고, 단체급식조리사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위생업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수업에서 필기와 실기 수업을 받으며 생소한 내용이 많아 머리가 아플 정도였지만, 강사선생님께서 꼼꼼하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고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짧게나마 이틀 동안 현장실습을 참여하면서 직접 조리 업무 현장을 경험하면서 이론과 현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교육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실습 담당자로부터 칭찬을 받아 전문가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매우 보람되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에는 현장 면접을 체험한 덕분에 처음 면접을 볼 때보다 훨씬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조리사 훈련과정의 담당상담사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면 다시 설명해 주시고, 1:1 면담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담당상담사의 도움으로 충남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급식조리사 2개월 훈련과정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이력서 쓰는 방법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보는 방법을 배운 덕분에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에 지원하여 지난 6월 21일 1차 서류전형 통과 후 6월 27일에 참여한 2차 면접에서 합격하여 최종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막힌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에 최종합격하여 합격자 등록 후,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하반기 9월부터 정식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2개월 동안 논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배운 교육 덕분에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논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를 포함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혼자서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을까? 어렵게만 느껴지던 한식조리기능사 국가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면접을 통과하여 학교 조리실무사로 취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2개월 동안 이뤄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매 순간 감사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저처럼 겁이 많고 세상이 두려워서 고민하는 여성분들이라면 꼭 새일센터에 오셔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상담을 받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일센터의 문을 꼭 두드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새일센터와 함께하는 한 해 : 파트너십 프로젝트 이야기



해청정의 성장 이야기

해청정 소개

해청정은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해조류 가공 전문 기업으로,
전라남도 완도의 청정지역에서 직접 채취한 해조류를 기본으로
다양한 해조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역과 다시마를 원료로 한 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인 ‘해초미인’은 서울푸드어워즈 2015에서
힐링 부문 최고의 식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청정은 높은 품질의 해조류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로서 해청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수성 들을 단 몇 문장으로 다 보여줄 수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에겐 보물과도 같은 해청정은 본래 완도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경험하셨거나 경험 중이신 분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해초미인이라는 큰 브랜드를 2015년 런칭해 성공했으며 이후 식품관련 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내로라하는 TV 홈쇼핑 런칭도 이루었습니다.

이후 해청정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해청정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이 인기가 있고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 기쁨만 가득할 것 같았지만, 나름의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운영 중이던 생산설비 및 인력으로는 밀려드는 물량을 다 채우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퍼지는 유통판로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망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인력난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새로운 해청정을 개업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땅으로 보령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웠지만, 그곳을 보령으로 선택한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업을 세울 공업단지가 정해졌고 설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마침 2023년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서 일할 구직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설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정의 차질이 생기면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채용하려던 구직자들을 바로 채용할 수 없었고, 12월 생산설비가 완성된 후에는 채용자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자조차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보령새일과 만나다 : 파트너십 구축

보령지역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에 연속해서 구인도 올려보고 기관들에 하소연도 해 봤으나 결과는 매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고민 중에 작년 말 생산설비를 마쳤을 즈음 기업체 수요조사차 우리 기업을 방문했다던 새일센터 상담사님께서 주신 명함과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안내지를 보았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새일센터에서 지역 내 여성 인력구직 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구직자들을 알선 채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라면 우리의 인력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파트너라는 판단 하에 당시 받았던 명함을 통해 연락하고 바로 상담 날짜를 잡고 한걸음에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센터 방문 후 상담사님께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며 인력지원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 상담사님께서 상담내용을 정리하시고 내부회의를 거쳐 새일센터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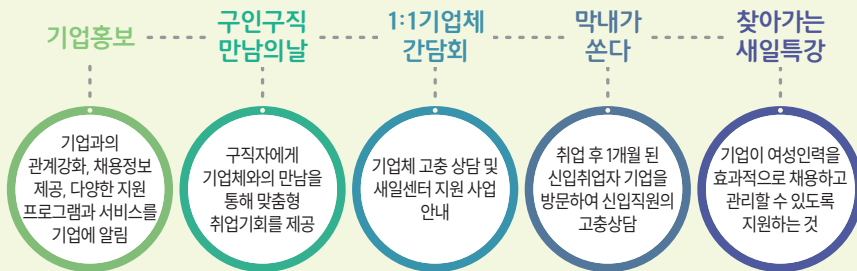
다음 날 오후 상담사님께 전화가 와 우리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센터 상담사님들과 논의한 결과 올해 새일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해청정 맞춤형 지원을 진행해 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들었던 ‘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골자는 대략 이렇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일촌 협약을 진행한 곳이라면 기업 홍보부터 시작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인재를 알선해 주고,
 알선 채용된 근로자는 인턴십을 통해 기업에 인턴 채용의 부담 및 인력난을 해소해 주며,
 1:1 맞춤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고충 상담 및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새일센터의 사후관리 사업의 지원을 약속해 새일센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

보령새일과 함께하는

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



Step ONE!!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가족 만들기

‘기업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첫 단계는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의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일센터 상담사님과 상담 시 아무래도 해청정 자체가 신생기업이다 보니 해청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 해청정에서 일하실 분들이니 기업 소개 및 제품 소개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신 상담사님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기업에서 진행하면 기업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해청정 본사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자차가 없는 구직자들에게도 면접 기회를 주고자 새일센터의 동행면접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고, 새일센터의 연계를 통해 고용센터를 통한 지원자를 알선 받기도 해서 13명의 많은 인원이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면접 후에는 구직자들에게 기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견학을 마치고 해청정의 제품과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기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구직자들의 말을 듣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잘 진행한 듯해 뿌듯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행사 뒤에는 구직자를 모으고 행사를 준비한 새일센터의 노력이 상당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9명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해청정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Step TWO!! 하나가 된 1:1 간담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려던 나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채용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한다고 말하던 구직자들이 이렇다 할 정확한 이유가 없이 그저 개인사정을 말하며 퇴직의사를 밝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인력 관리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인턴 실사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셨던 상담사님께서 이 부분을 눈치채시고 1:1 간담회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1:1 간담회를 추진하여 근로자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 대표로서 짐작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미처 대표에게는 직접 말해주지 않아 알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대두된 문제점은 대략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바로 채용한 생산직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중간관리자의 부재와 신생기업의 초기멤버가 된 근로자들 간의 유대감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신속히 해결해야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우리는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간관리자를 영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신생기업으로서 나타나는 근로자 간의 유대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 진행하는 ‘막내가 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tep THREE!! 우리가 쏜다가 된 막내가 쏜다.

1:1 간담회의 결과를 통해 진행이 결정된 ‘막내가 쏜다.’를 위해서 새일센터 상담사님과 일정조율을 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미리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한 후여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함께할 시간만 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사일정을 정하고 센터에서 근로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식을 마련해 와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님 안내로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취업 한 달 남짓 새로 취업한 신입 근로자의 입장에서 센터에서 준비한 간식을 선배 근로자들과 서로 나누며 신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신생기업은 선배가 없으니 근로자들 스스로 서로 선배가 되고 서로 신입이 되어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상황들을 나누며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해 근로자들 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행사 후 근로자들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훗날 제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추후 새일센터를 통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 이 행사를 또 진행해 근로자들 간 유대감을 높일 기회를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Step : 지속적인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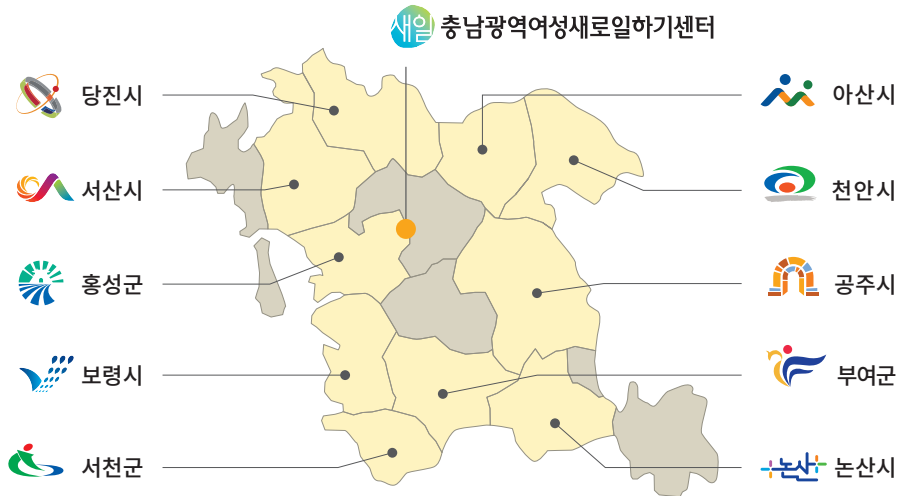
막내가 쏜다. 프로그램 진행 후 저는 새일센터로부터 기업특강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믿고 맡기면 믿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므로 다시 한번 믿고 맡겨 보려 합니다. 대신 새일 상담사님께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정보제공만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근로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새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그 부분도 역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새일센터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들을 짧은 필력으로 되돌아봤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 및 도전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잘 해결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일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센터와의 협력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도 새일센터와 협력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희망과 기회를 창출하며,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남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구 분	지 역	위 치		전화번호
새일 센터	충남광역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4층		041-404-1430
	천 안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2길 39, 천안 YWCA B동 2층		041-576-3060
	공 주	공주시 우금티로 753,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평생교육원 3층		041-850-6061
	보 령	보령시 한내로 11,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5층		041-935-9663
	아 산	아산시 시장길 29,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41-570-5530
	서 산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41-660-2707
	논 산	논산시 중앙로398번길 29-9,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1층		041-736-6244
	당 진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당진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1층		041-350-4030
	부 여	부여군 규암면 아름 1로 64, 가족행복센터 2층		041-830-2920
	서 천	서천군 서문로 38, 가족누리센터 2층		041-953-8431
	홍 성	홍성군 충서로 1318번길 37-13, 2층		041-630-9541
센터 미지정 지역	금 산	금 산 군 청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여성가족팀	041-750-4133
		국민취업지원	금산읍 인삼로 70, KT 금산지점 1층	041-731-8692
	예 산	취 업 지 원	예산읍 아리랑로 177, 예산군 여성회관	041-334-8944
		국민취업지원	예산읍 군청로 1길 20, 더예당 2층	041-620-9573
	태 안	취 업 지 원	태안읍 백화로 180,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041-670-6068
		국민취업지원	태안읍 동백로 336, 2층	041-661-5695
	청 양	청 양 군 청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여성가족팀	041-940-2093